

# 귀국 보고서

2020년도 MDP, EUN SOO KANG

바쁘고 복잡한 한국 도시생활을 벗어나 미국 샌디에이고 UCSD GLI에서 1년의 생활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기억들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출국 당시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태에서 입국하고 미국 LA 공항에 입국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환하게 웃어주고 딸과 함께 입국한 나에게 농담을 건내며 환하게 맞아준 것은 미국의 인상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가을 KDI에서 학업 도중에 비자 인터뷰와 보험, 이사등 힘든 일을 거치고 10여시간의 비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되었다.

샌디에이고에 머문 사람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그렇듯이 나 또한 강력히 샌디에이고로 학업과정을 선택하시라고 추천하고 싶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세금과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긴 한 것이 여러 가지 고민 중 하나이겠지만 날씨와 생활 환경을 생각하면 그 만큼의 값어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생활 준비과정과 미국에서 겪었던 경험담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다.

## 1) 준비과정 및 초기 생활적응

UCSD 학교 입학에 결정하고 미국 비자와 학교 입학절차가 처음 해보는 것이니 만큼 복잡하고 어려웠다. 입학서류를 제출한 후 비자서류가 9월쯤 도착해서 비자인터뷰를 10월 말쯤에 한 것 같다. 서류가 도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조함도 있었고 비자인터뷰의 부담도 있었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UCSD는 폐렴 및 각종 예방접종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새로 접종을 받기도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1년 내내 필요한 개인적인 물품 및 약품 옷 등을 이민가방 4개에 나누어 싣고 출발했다. 미국에서 거주할 주거지와 차량은 전에 갔던 직원의 숙소와 집을 인수 받았다. 전에 살던 사람에게 인수받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살 집과 차량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초기 정착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숙소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면 샌디에이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에스디닷컴 이나 샌디에이고 홈스테이닷컴에서 알아보거나 아파트를 리스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유시티, 카멜벨리, 델마르 지역에 주거를 정하므로 그 주변에 정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차량이전은 한인 집주인의 도움으로 미국 AAA 보험회사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DMV에 직접 가서 이전을 하고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기도 했다 한다. 영어가 서툰 상태에서 DMV에 가서 자동차 이전과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한다는 것은 정

말 어려운 일이다. 자동차 이전의 부담을 던 것만 해도 감사했다. 미국에서 생소했던 것이 차량 인수자가 혼자 DMV가서 자동차 등록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핑크슬립(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으로 이전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핑크슬립은 절대 차량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절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차량 안에 물건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음료수만을 보고 차량유리를 깨서 가져가기 때문에 차량 안에 가방, 음료수, 소지품 등을 두고 내리면 안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 2). 학교생활

UCSD대학교는 1년에 겨울,봄,가을 3학기 과정인데 겨울과 봄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했다. 미국에 가서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답답하고 학업과정의 중압감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KDI를 통해 간 GLI 학생 모두 잘 완수했다. 겨울학기에 2과목은 ELS여서 영어과목과 U.S. Government는 필수과목이어서 GLI학생들 모두 같이 수강했고 나머지 한과목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Food Security를 수강했는데 Jeniffer 교수님도 좋았고 식량안보와 식량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만족스런 과목이었다. 가끔 너그러운 교수님은 우리 GLI 학생들에게 PPT발표는 빼 주기도 하신다. 봄학기도 겨울학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으로 ELS과목 두 개 나머지는 선택과목이었다. 나는 다소 생소한 CSR(사회적책

임기업)과 Forigen Policy과목을 수강했는데 두 과목 같은 Richard교수님이었고 명망 있는 교수님이었다. CSR첫 수업 때 교수님에게 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가를 질문했었는데, 기업과 사회는 사회전체에게 협력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의 준수를 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해 주셨다. CSR은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반응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새로운 과목이었다. 그에 반에 ELS과목의 교수님들이 가끔 수업도 안하고 수업을 이끄는 면에서 학생들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서 GLI학생들이 사무실 코디네이터들에게 항의 섞인 메일을 보낸 관계로 가을학기에는 교수님이 바뀌었다. 가을 학기에는 드디어 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한 과목만 필수이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이었는데 그 중 나는 Korean Security를 수강했다. Stephan Haggard 교수님이었는데 그 분은 미국 내에서도 태평양 문제 전문가로 명망 있으신 분이었고 수강생 중에 3분의 1정도가 한국 학생이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아주셨는데 한국 학생이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자율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미국 내의 유명한 UCSD 학교 3학기 모두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나름 자랑스러웠다.

### 3) 자동차 사용 관련

처음에 궁금했던 것은 내비게이션이다. 무슨 내비게이션을 써야 하는

지 몰랐는데 구글지도가 내비게이션의 역할까지 해서 매우 편리했다. 구글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는 계약 관계상 이용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미국은 땅이 넓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오프라인 지도가 필수이다. 또한 미국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주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으로 가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전에 오프라인 지도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차량을 떠날 때는 차량 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안심이다. 차량 점검은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여행가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150달러 정도면 기본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었고 브랜드 별 서비스 센터나 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여행을 많이 하면 중간에 타이어 교체가 필수이고 점검 시에 반드시 타이어 체크가 요망된다.

미국은 시내에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프리웨이가 아주 많다. 이용료는 없으며 마트에 갈 때도 프리웨이를 타야 해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응되면 익숙해 진다. 많은 프리웨이로 나들목이 많은데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나가는 길과 들어가는 길을 주의해서 들어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접어들어 멀리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차관련 경험을 들면 미국은 불법 주차에 대해 엄격하다. 주차가 가

능한 도로는 갓길에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빨간색은 소방차 이용 도로로 절대 안되며, 노란색은 일시적으로 짐 내릴 때만, 파란색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해도 주차이용료를 내야하며 이용료는 모바일이나 주차머신을 이용해 주차요금 티켓을 대시보드 앞에 두고 내려야 한다. 주차구역이라 해도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나도 불법티켓을 한 번 발급받았는데 주위에 주차 안내원이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납부해야 하고 주차티켓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티켓 발급받은 가격대로 내야 했다.

#### 4) 기타 활동 경험담

미국생활 중 가장 만족했던 것은 운동이었다. 정착 초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어 거의 모든 스포츠시설이 문을 열지 않은 관계로 운동이 어려워서 산책을 위주로 했는데 여름이 지나서 다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봉사자의 권유로 YMCA에서(그들은 'The Y'라 불렀다.)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회비로는 가입비가 60달러, 월회비가50달러여서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또한 더 저렴하다고 했다. 24Hours의 경우 월회비가 20~30달러 정도면 된다고 했다. The Y 경우 짐, 운동기구, 수영장, 그룹활동,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운동이 처음이라 그 중에

서 그룹활동을 위주로 했는데 댄싱,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바디컴벳 등 요일 별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루에 한 프로그램씩 이용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은 어르신 분들의 활동이 많다는 것이었다. 80 이상의 어르신들도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랜 기간 동안 단련을 하신 것 같았고 자기 역량에 맞는 운동에 참가하며 이용회의의 40퍼센트 정도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고령자 분들도 운동을 하지만 대부분 산책이나 등산 정도이고 스포츠 센터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데 미국은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 보여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은 듯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사람 대부분은 모두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응해 준다. 처음에 나도 상대방이나 주변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상대방과 나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예절이라는 걸 알고 몸에 익숙해 졌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리고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와 지금도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경험하고 대전과 한국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알 수 있었다. 언젠가는 우리 같은 경험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바뀌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

## 1. 샌디에이고의 기후 및 지리적 여건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는 미국 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해안도시이며 LA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멕시코 티후아나를 경계로 하고 있고 미국 대륙의 최초 접경지역이며, 해군기지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바다, 산악, 산림, 사막 등을 고루 접할수 있는 지역이다. 쾌적한 기후 때문에 휴양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주변 도시로는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로스앤젤레스와 가깝고, 샌프란시스코는 8시간이 소요되며.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까지는 5시간 거리에 있다. 면적은 963.6제곱 킬로미터이며, 캘리포니아 주의 제 2도시로 13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 타운으로는 라 호야, 코로나도, 출라 비스타, 스프링 밸리, 라 메사 등을 포함하는 규모가 큰 도시이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일년 내내 맑고 파란하늘과 따뜻한 기후를 즐길 수 있었다. 내가 머물렀던 2021년에는 8월경 한 여름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야외 생활을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었고, 그늘에서는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은 한국의 늦은 봄날씨를 연상케 하는 기후이며, 겨울은 한국의 가을과 비슷한 기후였다. 12~2월까지의 새벽의 온도가 춥다고 느껴지고 저의 경우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밤의 쌀쌀한 기후로 인해 전기장판과 따뜻한 패딩을 입고 자야 했다.

미국은 온돌문화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 신기해 하며 부러워했다.

샌디에고 날씨는 연중 낮 기온이 20~30도로 생활하기에 쾌적한 날씨와 특히 여름에도 태평양 연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 걱정이 없이 지낼 수 있다. 기후 덕택에 연중 학업과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었으며, 샌디에고는 서핑과 해양 레저 관광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샌디에고에서 내륙 쪽으로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 와이오밍 주를 여행을 한다면 여름에는 뜨거운 사막 날씨와 겨울에는 설경과 스키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며, 샌디에고 날씨의 특징 중 하나는 5월과 6월은 태평양에 불어오는 찬바람과 사막지역에서 오는 더운 열기가 만나면서 온도가 낮고 구름 낀 날씨가 연속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5월을 Gray, 6월을 Gloom이라고 표현한다. 아무리 4계절 내내 낮 기온이 여름 날씨라지만 가을, 겨울의 아침, 저녁은 쌀쌀한 경우도 많으니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외출할 일이 있는 분들은 가을외투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좋을 듯 하다. 또한 선글라스 착용과 선블락은 남녀 누구에게나 필수였다.

Coronado Beach, Point Loma, Seaport Village, La Jolla Cove 에서는 이국적인 바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Balboa Park에서는 거리공연 및 박물관들(매주 화요일은 거주인 무료입장 가능한 박물관이 있음)을 구경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답게 다운타운에는 항상 많은 관광객이 있었으며, 해변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절경과 바다 코끼리와 같은 해양동물들도 연중 관찰할 수 있었다.

## 2. UCSD 대학에서 수업을 받으며 느낀 점

나는 UCSD GLI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였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COVID 19 바이러스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혼자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홈스테이에 거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계 미국인 주인과 일본, 베트남, 프랑스, 미국학생들과 거주하며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특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미라메사 지역이었으며, 프리웨이(무료 고속도로)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렵지 않았다. 초기 생활 정착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듯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도 하였지만 학기가 시작되기 보름 전에 도착하여 전기, 인터넷 신청, 은행, 자동차 구입, 운전면허, 쇼핑 등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착 생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 2. UCSD GLI(Globak leadership institute) 및 학부과정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UCSD GLI 및 학부과정의 수업방식은 KDI School 과 유사하고 단련되

어 이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학부과정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개설되어 여력이 된다면 수강한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비학위 과정에 개설된 ESL 및 미국 관련 과목은 미국의 역사, 문화, 정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지리적인 광대함으로 인해 미국의 연방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UCSD GLI(Global Leadership Institution) 과정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높다고 생각되며, 편성 과목이 글로벌 관련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정부, 경제, 경영 등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실용적인 학문 위주의 과목을 개설하였다. 교수님들은 강의 준비와 강의에 충실하며 미국식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중요시 하였고, 학생에게 주어진 발표시간이 우리나라 보다 엄격하다. 3학기 동안 어학 과목을 꾸준히 병행하며 전공 수업의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영어 구사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졌던 과목은 Us Security and Decision making, Foundations of Strategic Studies이었다. 학기중에는 ESL과정을 매 학기당 2과목 이수하였다. ESL과정은 학위과목 이수에 필요한 글쓰기 위주의 교육과 자료를 찾고, 인용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 문법도 병행해서 가르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학과목 이수에 필요한 기본 영어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GLI과정이 10년 이상 졸업생을 배출해 오면서 학사지원에 노하우가 있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정착을 비롯한 학업 고충을 잘 해결해 주었다. UCSD는 IR/PS 국제관계(정치)학 분야에

서 미국내 대학 7위권 정도의 우수한 학교로 교수 및 수업내용은 상당히 우수한 대학인 듯했다.

GLI 경우 학기별 ESL 2 과목 포함하여 4과목 신청하며, 오후 늦은 수업을 듣는 경우 주 2일에 4과목 수강도 가능하였다.

KDI School 과 같이 발표, 토론, 보고서, 시험(중간, 기말) 으로 구성되지만 출석율 80%를 학교측에서 강하게 요구하며, 미준수시 비자 유지에 불이익 발생한다. 미국 샌디에고 UCSD GLI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1년의 이수과정을 거치면서 잘 선택했다는 이유를 말한다면, UCSD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의 생활여건이 편리하며, GLI 프로그램이 10년이상 유지되면서 국제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4~5과목으로 12학점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2과목은 영어과목으로 전공과목의 이해도 향상과 과제제출 등을 돕기 위하여 개설되는 과목이다. 영어 과목을 통하여 영어회화, 문법뿐 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문화 이해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전공과목으로 가을학기에는 비학위 학생들을 위한 2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학위과목 중 관심과목을 신청해도 무방했다. 겨울학기에는 한 과목은 GLI 비학위 과목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학위과목으로 관심 과목을 신청하면 된다. 봄학기에는 2과목을 학위과목으로 관심과목을 신청하면 되므로 선택폭이 넓다.

해외연수를 하면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학생 친구를 초청하거나 사귄 기회를 가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

KDI와 연계되어 있는 GLI과정은 3학기 (Quarter)제로 이루어진 1년 기간의 석사과정으로 총 12과목 (총 36점)을 수강해야 했다. 이 과정 중 일본인 2명, 중국인 1명과 그 외는 다 한국인 GLI 수강자 였다. 주로 GLI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시간표가 맞지 않아 학위수업도 수강하였다. 학위 수업은 발표, 토론, 보고서, 시험 등이 모두 포함되어 버거운 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느낀 긴장감과 그들의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GLI수업은 참으로 유익했다. 특히 가을학기 Global Leadership (Professor Olson Lois)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교수님 말하는 속도가 과히 초스피드였이지만 그분의 열정적 수업태도나 수업내용 역시 가장 탁월하신 듯 했다. 다만 3학기 내내 떠는 여름 ESL 영어과정 중 한 과목은 특히나 수업준비나 교육내용이 돈을 내고 듣기에는 아까울 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목일 지라도 본인의 의지만 따라 준다면 진흙탕속에서 진주를 줍듯 본인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은 될 수 있었다.

-UCSD International Center의 Tutor (연 \$80) 프로그램과 Mesa Community College (무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UCSD GLI프로그램으로 영어연수의 목적 달성에 불충분하여 Mesa Community College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는 것 역시 좀 아이러니 했다.

####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본인은 미라메사의 주택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한국의 “하숙” 개념으로 4주 1,000불이었다. 장점은 수도·전기·인터넷 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요금 부담도 없고 정착 초기, 귀국 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미국인 가정, 문화, 생활을 이해할 수 있고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다른 이웃과 교류를 확대하고 다른 하숙생과 만나고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 프랑스, 베트남, 미국학생들과 지내며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이든 음식과 문화가 점점 비슷해져가는 인상을 받았다.

단점은 미국인 및 필리핀 위주 식단, 공유 화장실이고, 부엌·냉장고·식기 이용이 다소 불편하지만 주인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었다.

####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어학 연수와 관련하여 미라메사 대학에 위치한 Continuing Education 센터는 문법, 회화, 읽기 등 다양한 수업이 수준별로 주중, 주말에 개강되어 수강이 용이하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으나 3시간 수업이므로 학

생은 저녁에만 가능하므로 하루의 스케줄이 꼭찰 수 있다. 또한 UCSD 국제(학생)센터에서 자원봉사 선생님과 매치하여 1:1, 1:다중 수업을 회원 가입비용만 내고 참여할 수 있는데, 가을학기는 희망 학생이 많아 연결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Tutor와 수업은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 역사를 배우고 미국인의 가정, 문화, 교수방법(Teaching)의 특징을 알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 아울러 학생 자체 어학 동아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었다. 도서관에서도 ESL 프로그램을 각 소재지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 여성(주부) 대상 프로그램도 있다.

여행 및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여행을 하면서도 예약문화가 정착된 나라임을 실감했는데, 유명 관광지의 숙박, 캠핑, (유명한)식당의 경우 예약이 필수이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학교, 가족의 일정과 학사일정에 맞게 준비가 필요하다.

샌디에고는 교육도시로도 면모를 잘 갖추고 있어, 학교, 지역 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학교 도서관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도 공공 도서관이 있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곳 샌디에고에서 평생교육원과 같이 운영되는 Continuing school에서는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료로 ESL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이곳 서부를 두루 여행할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자가용으로 여행을 하면 비용이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을 두루 다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특히 캠핑장비를 꾸러 떠나는 여행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으로서 미국 시민의식을 관찰해 봤을 때 배울점이 많다. 공공도덕과 질서 문화는 몸에 베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공공장소에서 줄 서는 문화, 규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동일한 법 규정을 적용 받으며, 경찰의 공권력이 강력해서 법 집행에 철저하므로 법치주의가 잘 준수된다. 또한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도 신뢰의 바탕이 되어있으며, 이웃간 사생활 침해에 엄격하며, 상호 존중하고 인사를 잘한다. 인터넷 예약 문화가 일반화 되어있어 선진국 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은 주연방주의 제도하에 지방자치가 잘 정착되어 주 별로 특색 있는 문화와 경제, 법제도, 세금 등도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미국 전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안정된 지방자치제도가 바탕이 된 것 같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투자를 늘어가며,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된다.

####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년차 생활은 나의 인생과 직장생활에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업을 통하여 글로벌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가족들과 미국의 생활 체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UCSD GLI과정은 나의 요구에 맞은 실용적인 학문 위주로 과목을 개설한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 같다. 당초 내가 목표한 성과에는 못 미치지만 영어 능력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매우 만족한다.

## 7. 기타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발급에 따른 인터뷰는 시중에 출판된 유학(연수)관련 책자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바, 미국에서 관심갖는 사항인데, 목적, 거주 예정지, 유학후 계획, 비용 조달방법 등(미국에서 불법체류 우려하여 체크하는 듯한)이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질문을 받았으며, 당일에 인터뷰 창구쪽에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면 다른 인터뷰의 답변 및 질문을 추정할 수 있어 도움이 됨.

- 공항을 통한 입출국(미국내포함)시 여권, I-20, DS-2019를 항상 지참하는 것이 편리하며, DMV, 은행에서도 추가로 I-94, 본인 거주주소를 요구하므로 초기에는 항상 휴대 권장한다.

- DMV의 경우 외국인은 필기시험 등록 및 합격후 발급된 임시 면허증으로 연습한 후 실기합격 후 임시면허증(종이)은 3개월 유효하므로 기간 도과시 DMV를 방문 연장(갱신)하고 정식 면허증(플라스틱 ID) 발급을 DMV 본부로 재차 요청해야한다.

-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Social Secret Number 를 요구하여 사회보

장국(SSN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였다.

현지에서 중고차량 구입은 CarMax, 토요타 등 제조사 인증 중고, 일반 중고상, SD saram.com 등을 각 딜러별 장단점, 가격을 비교함이 바람직 하며, 매도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여름방학 시간을 아끼고 빠른 귀국이 가능하다.

yelp(식당, 차량정비소 등 추천), gas buddy(주변 주유소 가격 비교), national park(국립공원 이용), 한국일보USA(한국업소 검색) 등 어플을 사용하면 편리했다.

한국에서 그들의 자연환경 및 쓰레기 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서류보다는 미라메사 주변의 해변, 공원, 산 등을 돌아보며 배출 및 처리 방법, 시민의식 등을 현장에서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에 관해 질문을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자세하지만 약 한달만에 회신 받음. 즉, 현지 체험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더 빠르고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음. 정착 초기의 시행착오는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추억이 될 수 있고, 짧은 연수기간이나마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경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아파트 층간 소음이 예민한 문제이고, 실제로 민원이 있어 관리실로부터 경고를 받을 경우 심하면 퇴거 조치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아이가 어린 경우 1층을 추천한다.

Mira mesa 지역은 UCSD는 출근 시간대 20분, 그 외에는 15분 소요된다. Costco(15분), Zion Market(한인마트, 15분), Walmart(10분) 등 마트가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했다.

특히 도서관(도보 5분)이 가까워 아이 방과 후나 주말에 자주 방문하였음. 거주 증명 서류(집 계약서, Utility 청구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행사에 대한 일정을 게시하므로 음악회나 어린이 체험학습 같은 수업도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UCSD International Center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어학 지원을 위하여 EIA Program을 제공하고 있음. Tutor, Tutee를 1:1로 맺어주어 해당 Tutor와 주1회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비용은 1년에 \$100 내외였다.

본인은 현지 교사 출신의 Tutor를 지정 받았고, 함께 커피숍에서 2시간 정도 문화와 시사 등에 대화를 나누면서 어학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크리스마스 및 Thanks giving day 등 주요 공휴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추억을 만드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동네 도서관에서는 학생 대상의 숙제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는 유학생 보험을 선택할 때 비자를 대행해주는 보험사를 선택하였음. 해당 업체로부터 서류 작성 및 인터뷰 질의리스트 제공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진행하였다.

LA공항에서 입국 또는 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한인 택시(리무진)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수화물을 개수 제한 없이 실을 수 있고, 약속된 시간에 공항에서 집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가격은 200~250불 정도이며, Sdsaram.com에 홍보업체들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면 된다.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LA공항 ↔ Zion Market를 운행하는 리무진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로 폐지되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DMV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DMV에서 면허증 발급 최초 신청 시 DMV 담당자에 따라 면허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실제로 사유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상황은 신청인이 SNS를 갖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

일단 UCSD의 International Center에 방문하여 'DMV에 운전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SNS를 발급받고 싶다'고 하여 SNS 발급에 대한 학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 동 추천서를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J-1비자의 경우 SNS발급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줌. 해당 문서를 DMV 담당자 이메일

(DMV 고객센터로 문의)로 보내면 면허를 재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이 옴.

또한, 면허 시험은 모두 통과하였으나, 실물 CARD를 기다리다가 결국 귀국 날짜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 절차를 통해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받은 문서를 구비하여 DMV 고객센터(이메일)에 보낸다면, 1달 이내에 우편으로 실물 CARD를 수령할 수 있음.

작년 12월 말 미국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을 때는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와 낮은 환경 등 모든 것들이 막막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수업 중에 필요한 발표, 토론에 대한 준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1년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여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일은 많이 이루었던 시간인 것 같아 만족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크다. 특히 초반에 좌충우돌한 경험들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GMP 2년차의 학교를 선택한 후 해당 지역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한다면 빠른 시간에 적응하며 불필요한 애로사항들은 덜 경험할 것이다.

미국에서 휴대폰 개통시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미국 샌디에고에서 휴대폰 개통시 (유심칩만 미국것으로 갈아끼우고 prepaid 시스템으로 사용가능) 버라이즌 (Verizon) 통신사나 T모바일 하심이 좋을 듯 하다. 또한 한국에서 가져간 휴대폰은 미국에서 잘 안터지는 경우가 많았다. 1년정도 생활하는 경우는 미국 버전의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것도 좋을 듯 하다.

DMV에서 실기시험 때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Claremont DMV에 문의한 결과, 국제면허증이 있는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하지만 이것역시 실기시험 응시전에 알아보고 가야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운전면허 실기는 한국과는 약간 다른 규정으로 인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하였다. 나름대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시 녹색불일 때 정지 후 출발하였으나, 시험감독관은 녹색불일 경우 절대 멈추면 안된다고 하였다. 멈출 경우 뒷 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 그렇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는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룰이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실기 면허에서 실패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실기테스트가 많이 밀려 있었는지 테스트를 약 3개월 후에 다시 받을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운전면허 실기는 한국에서 20년간량 운전한 나름 베테랑 운전사인 나에게도 부담이 많이 되었다. 오히려 운전한 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자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고, 시험감독관의 재량이 많이 좌우하는 경우가 있었다.

#### 10. 미국생활에서의 전반적이 느낌

- 몇 년간의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모처럼 긴 휴가를 다른 나라에서 1

년동안 누리게 되는데 인생의 선택상황에 있어 싱글을 고집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사정에 의해 가족은 한국에 두시고 싱글로 여기 해외 연수를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저는 정말 가족과 함께 오시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학교 선택에 있어서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행 친구랑 함께 오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싱글로 오시면 여행 친구 찾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처럼 밤에 돌아다니기가 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리에 불빛도 적고, 소위 말하는 밤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미국은 참 외롭게 느껴집니다. 혹 밤문화가 발달되어있다고 해도 혼자 바나 음식점을 다니는 것도 한번 두번 이지 별루입니다.

-저는 바깥활동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혼자 잘 지내는 스타일이고, 매주 테니스라든가 수영레슨이라든가 이런 여가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 여행을 가고자 했을 때 여행친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GLI 분들은 가족이랑 와서 함께 다니자고 하는 것도 민폐고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는 거 보면 새삼 가족의 소중함이 한 번 더 느껴집니다.

-한국인 GLI와 어울리다보면 여기가 미국이 아닌 한국사회의 연장 같습니다. 물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면서 정보교환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사시는 기회를 얻었으니, 외국인 친구들과

도 자주 교류하도록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겨울학기때 일본에서 온 친구와 많이 어울렸습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후버댐-그랜드캐논-세도나 등) 여행도 함께 하고 샌디에고에 있는 potato chip rock, point loma, balboa park, torrey pines state reserve 등 관광지도 같이 다니고 바비큐 파티 등 참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가고나니 너무 아쉽고 허전했다. 필자의 미국 유학생할 중 이들과 생활한 3개월 겨울 학기가 가장 알찬 좋았던 추억 중의 하나입니다.

- 필자의 경우 필리핀 계 미국인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그리고 여행시 아리조나 주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있겠나 싶어 fine을 내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나만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한국인 및 우리나라의 이미지 실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자진 납부하였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점은 우리 개인 한명 한명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임을 느끼게 되었다.

- 마지막으로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서 필자는 한국만큼 서비스가 좋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DMV말고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람도 통화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DMV 서비스는 ‘복불복’ 이라는 말이 맞을 듯 싶다. 국제면허증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이 불가하여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 후에도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Social Security Number까지 발급받아 고객센터 센터에 메일을 보내고 하는 등의 번거로운 수고를 해가며 정식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3~4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약 2주 내에 운전면허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